

외신 동향

◇ North Korea's economy: Spring release, Economist('15.3.2)

-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, 심오한 변화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음

- 최근 북한경제에서 자유화 개혁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
 - 국가전체적인 집단경작 대신에 가족 단위의 경작이 확산되고 있으며, 지난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식량자급을 달성
 - 과거 수십 년간 1% 성장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이 금년에는 7.5%의 고속 성장이 예상됨(현대경제연구소)
- 농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실험은 김정은 집권이후 3년여에 걸쳐 비밀스럽게 고안되어 온 것으로 보임
 - '13년 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약 12명의 노동자들이 농경 작업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사회주의 집단농장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
 - 동 작업팀은 생산물중 일정 쿼터(30%)를 보유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음
 - '14년에는 동 작업팀이 가족단위 규모로 더욱 축소되었으며, 보유할 수 있는 쿼터도 60%까지 늘어났음
 - 또한, 가족 텃밭의 규모도 100제곱미터에서 3,300제곱미터로 커졌는데, 이는 국유지의 준사유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'혁명'에 버금하는 조치였음

- 국영공장 관리자에 대해서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개혁조치가 시행되었음
 - 동 관리자들은 그들 스스로 근로자 고용, 임금수준 결정, 원료 구입 및 제품판매를 할 수 있음
 -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국영기업 관리자들도 국가에 일정한 몫을 납부해야 하나,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법인세와 다른 점이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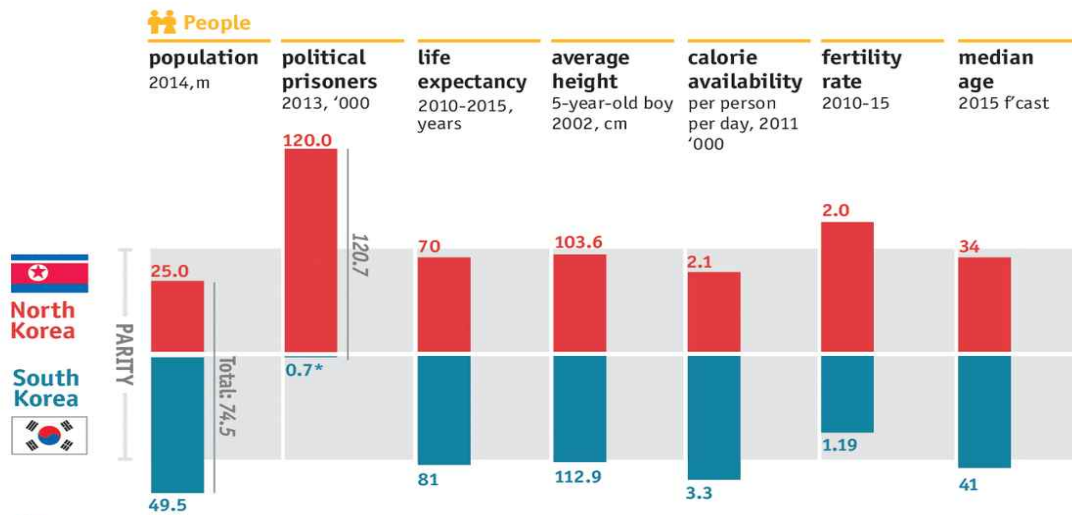
- 북한은 또한 경제특구 건설을 열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
 -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진지역으로 최근 중국기업들의 도로건설, 러시아 화물열차 연결을 위한 터미널 진수 등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음
 - 북한 당국은 '1년 이후 19개의 새로운 경제특구를 발표했으며, 그 결과 현재 북한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1~2개의 특구를 갖고 있음

- 이러한 최근의 변화의 조짐들은 북한이 경제개발을 원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줌
 - 그러나,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또는 국가의 탄압 및 폭력을 줄이면서까지 경제개발을 해 나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
 - 결국, 현재의 개혁조치가 계속되더라도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 주민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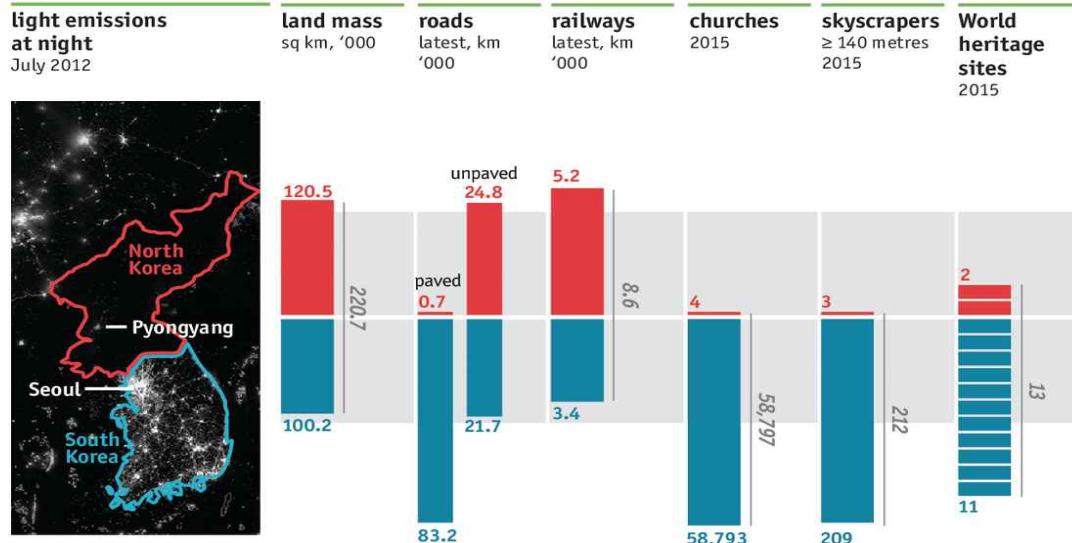
※ 별첨 : 남북한 주요 경제통계 비교

North-South divides

The two Koreas' share of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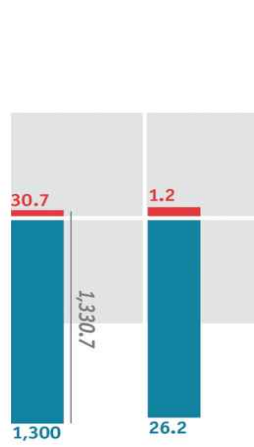


Infrastructure & environmen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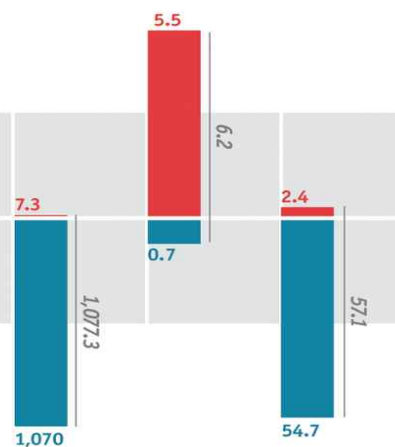
Economy

GDP 2013, \$bn
GNI per person 2013, \$ '0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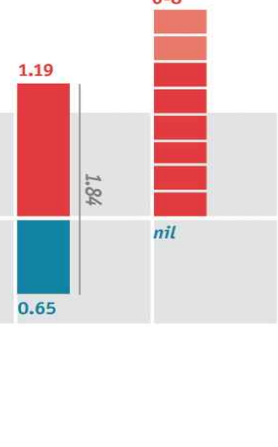
Industry & technology

total trade Goods, 2013 \$bn
iron-ore production 2013, tonnes m
mobile phones subscriptions 2014, m
CO₂ emissions m tonnes 2013



Military

armed forces 2015 f'cast m
nuclear warheads 2014, estimate



Sources: UN; Daniel Schwegendiek; FAO; CIA World Factbook; Statistics Korea;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; UNESCO; Bank of Korea; Orascom; Global Carbon Project; IISS; SIPRI; Thomson Reuters; press reports; *The Economist*
 Picture credit: NASA

*Includes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hose convicted of praising the North